

문화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눔 상상강좌 제8탄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좋은 건축은 공동체적 우리의 삶 지배 세우고 올리는 의미보다 만들고 가꾸어야”

승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주결론이라는 걸출한 배우가 감독, 주연은 물론 피아노 연주까지 모두 직접 소화하여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실제로 주결론은 쇼팽 콩쿠르 출신 피아니스트 윤다리와 함께 공연한 사실이 있다하니 그의 연주실력이 보통은 아닌 듯 보인다.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한 눈에 사랑에 빠진 소년과 소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로 다소 유치하고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음악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피아노 음악과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지는데, 묘하게도 영화의 마지막까지 몰입도를 유지시키는 흡입력이 있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면 단연 음악학교로 전학은 상현(주결론)이 오래된 피아노 연습실에서 사오위 곡 버전으로 연주한다. 생상스의 ‘백조’는 아주 유명한 곡으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이 곡은 ‘동물의 사육제’라는 모음집에 속해있는 소품으로 클래식 연주회장에서는 주로 앙콜곡으로 독립되어 자주 연주된다. 아마 지구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첼리스트들의 음반 어딘가에 반드시 수록되어 있는 곡이 아닐까 싶다.

다양한 첼로 소품들을 오케스트라 반주로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음반은 바로 장한나의 앨범 ‘백조(The Swan)’다. 레너드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팔라모니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아주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장한나는 여성 첼리스트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강한 운궁으로 아주 짙은 음색을 만들어 내는 연주자다. ‘백조’ 외에도 유명한 첼로 소품

“흔히 건축(建築)을 예술의 일부라고 말하는 데 이는 건축의 본질을 간과한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 일본인들이 세우고 올린다는 물리적 행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우리 선조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가꾸어낸다는 의미에서 조영(造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밥을 짓고 시를 짓듯이 집을 짓는 것이지요. 좋은 삶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좋은 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달동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풍경이지만 현실은 극과 극입니다. 서울의 달동네는 헐어 부수는 재개발의 대상이지만 산토리니는 관광상품으로 대접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낡고 미란 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파괴하는 것 보다는 공간을 공유하는 주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주는 건축의 덕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빈자의 미학’이라는 화두를 쫓아들게 된 계기는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는 서울의 일그러진 도시풍경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광배한 도시에서 건축은 한낱 개인의 부동산일 뿐 건축물이 ‘그 자리’에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그 곳’에서 살았는지 과거와 흔적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승 감독은 자신이 직접 참가했던 2000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슬로건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덜 미화적이고 더 윤리적인 것(Less Aesthetics More Ethics)’이다. 말하자면 덜 예쁘게 꾸미는 것이 더 윤리적인 건축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한스 홀라인의 비엔날레 출품작이 화제를 모았는데 너무 ‘소박해서’ 놀랐어요. 물위에 대형 철판을 띄어놓고 하얀 모래를 깔 뒤 돌 몇개를 가져다 놓는 게 전부였어요. 그걸 보고 언론들이 ‘윤리적 건축의 원형’이라고 찬사를 늘어 놓더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일본 교토의 한 사찰의 정원을 흉내 낸 것이었어요. 미화에 쫓린 나머지 기념비적인 건축에만 매몰된 서양건축이 동양의 여백에서 탈출구를 찾는 셈이지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중 생상스 ‘백조’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위한 발라드

(계륜미)와 함께 피아노 연탄곡을 연주하는 장면이다. 건반을 누르는 상현의 오른손과, 함께 나란히 피아노를 치는 사오위의 왼손이 겹쳐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씬씬스는 두근두근 기억될 명장면이다.

들들 가득 담아놓은 사랑스런 음반이다. 고아하고 우아한 백조 연주를 듣고자 한다면, 작곡가와 동향의 첼리스트인 피에르 푸르니에의 연주도 들어볼만 하다. 아주 따뜻하고 품위있는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연주자다.

음악 영화인 만큼 극이 진행되면서 아주 많은 클래식 음악이 등장한다. 상현이 연습실에서 친구들을 숨겨주며 연습하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서로의 테크닉을 급우를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 벌어지는 피아노 배틀에서 등장하는 쇼팽의 연습곡 ‘흑건백건’과 왈츠, 주로 피아노 음악들이 주를 이룬다.

오리지널 첼로 연주와 달리 영화에서 사용되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버전은 아주 색다른 느낌인데 원곡의 표제인 ‘백조’ 자체를 표현하기보다 자유로운 날개짓이 물결처럼 흐르는 듯한 피아노의 트레몰로 기법이 인상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상현이 졸업식에서 사오위를 위해 연주하는 생상스의 ‘백조’는 기억해둘만한 곡이다. 원래는 첼로를 위해 쓰여진 곡이지만, 영화 속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따라붙은 피아노 편

멀리서 상현의 연주를 듣다 울음을 참지 못한 채 공연장을 떠나버리는 사오위의 슬픈 뒷모습. 떠나는 그녀를 발견하고 무대를 박차고 나가는 상현. 영화 속에서 생상스의 ‘백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두 남녀의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발라드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 공동주최로 지난 30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8탄 문화나눔 상상강좌’는 건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리스 예게해에는 중세 시대 이곳을 지나가는 선원들의 주거지였던 산토리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코발트 빛 바다와 순백색의 건물 외관이 어우러져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불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지난 1995년 이 섬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서울의 달동네였습니다. 아랫집 지붕이 윗집 테라스 역할을 하고 옆집의 벽이 자신의 집이 벽이 되는 모습은 흡사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난 30일 광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문화나눔 상상강좌’에서 승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FASHION ART ‘어머니와 딸’

장소영 개인전, 내일까지 금호갤러리

패션디자이너 장소영씨가 오는 4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연다. 장소영은 어머니 장순철씨에 이어 광주에서 2대째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도미패션하우스’를 이끌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장소영은 어머니의 사진에서 모티프를 얻은 드로잉 일러스트 작품 등을 선보인다. 작업실을 배경으로 사진을 활용한 어머니의 얼굴을 일러스트로 그린 뒤 이를 다시 디

지탈 프린팅했다. 또 지퍼와 천, 옷핀, 단추, 후크 등 다양한 패션 재료를 혼합해 새로운 느낌의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어머니의 사계’

장씨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특별하며 마음 아픈 존재입니다. 어머니라는 친숙한 존재를 통해 누구나 쉽게 패션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 겸임대 대학원을 나온 뒤 패션아트 전시회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도미패션하우스 디자인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교감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10월 18일 까지 30% 대세일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엔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 062 226 7567